

“부부문제 다양한 해결책 제시…일종의 백신”

-양재진 원장

등장하는 이야기 100% 실제 사연
 썬 리액션 위해 녹화전엔 비밀로
 흥진경 “출연 후 내 일상도 변화”
 최화정 “2030 후배들도 팬이래요”



“결혼에 관한 ‘오답노트!’”

채널A·SKY 예능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애로부부)

는 지난 1년 동안 부부관계에 얽힌 가장 민감하면서 은밀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 왔다. 지난해 7월27일 첫 방송에서부터 “자극적”이라는 눈총 어린 시선이 쏟아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판언니’ 진행자 최화정은 이제 “주변에서 고민 상담을 할 정도로 확연한 변화를 느낀다”며 웃었다. 자연스럽게 매회 방송이 끝나자마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뜨겁게 달구는 ‘화력’도 체감하고 있다. 최화정은 “그야말로 핫(Hot)한 1년을 보냈다”며 기뻐했다.



채널A·SKY 예능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의 진행자인 방송인 흥진경·이용진·최화정·양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방송인 안선영(왼쪽부터)이 29일 서울 마포구 삼암 DDMC 녹화 현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채널A

29일 서울 마포구 삼암 DDMC 스튜디오에서 최화정을 비롯해 흥진경·이용진·안선영·양재진 등 진행자들은 “부부관계의 명암을 솔직하게 드러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애로부부’ 방송 1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 썬 리액션 위해 사연도 솔직다?

방송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모두 “100% 실제 사연”이다. 외도 후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아들에게 다시 접근한 비정한 아빠, 막 나가는 ‘상간녀’ 앞에서 결국 무릎까지 꿇은 아내 등 “차라리 드라마였으면 싶은” 사연도 부지기수다. 안선영은 “우리가 하도 욕을 해서 제작진이 진땀까나 흘렀다”며 웃었다.

“제작진이 진행자들의 썬 리액션(진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녹화 전에는 사연을 퐁퐁 감춰요. 현장에서 처음 마주한 각종 사연에 우리도 뒹뒹잡고 흥분

해요. 시청자들이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할 정도니까요.”

1년 전 “남편과 ‘쇼윈도’ 부부 직전인 ‘윈도 부부’까지 간 적도 있다”고 고백한 흥진경은 프로그램 덕분에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고 고백했다.

“전에는 남편의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이렇듯 세상 속에서 ‘순한 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사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각각각색 사연을 접하고 나면 저절로 ‘남편한테 뜨끈한 밥이나 한 끼 차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깐요.”

익명의 시청자로부터 한밤중 자신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고민 상담까지 받은 적이 있다는 이용진은 “주변에서 ‘애로부부’에 대해 엄청나게 물어본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실제로 일어난 일 맞느냐’ ‘결혼 무서워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까지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런 일이 자주 없으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야’라고

답해줘요. 하하! 개인적으로는 세 아들을 키우는 동료 개그맨 정주리 부부를 꼭 초대하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부의 마음을 들려주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 ‘비혼 권장 아닌 ‘백신’

최화정은 “‘애로부부’가 1년이나 이어갈 줄은 처음엔 몰랐다”며 깔깔 웃었다. “이게 가능해?”라고 깜짝 놀랐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함께 하자고 제안해준 (흥)진경이에게 매일 밤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애정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여러 현장에서 만나는 20~30대 후배들이 ‘애로부부’ 팬이래요. 현실감이 높아서 재미있다고 하네요. 간혹 ‘비혼 권장’이란 오해(?)도 있지만,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열정이나 사랑만으로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뿐이죠. 내게 맞 맞는 짝을 찾고 싶다면 오히려

꼭 봐야 할 프로그램이에요.”

양재진 진병원 원장은 “이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사명감도 드러냈다.

“이혼은 극단적인 해결책이 아닌, 하나의 선택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혼은 ‘결혼생활에 실패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있어요. ‘애로부부’를 통해 덜 불행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다양한 해결책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백신’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진행자들의 목표는 하나다. “2주년까지 가열차게 달리는 것”이다.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결제하는 돈이 아깝지 않은, 매회 눈을 땔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제 딸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앞뒀을 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부부, 인간관계, 세상만사에 대해 공부하듯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흥진경)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애로부부’ 어록5

부부라면 꼭 명심해야 할 명언들이 있다.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출연자들의 주옥같은 조언이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기본 마음가짐부터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한마디까지 모두 모았다.

● 방송인 안선영

1 “물, 단무지, 효도는 셀프! 내 부모 위한 효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마세요.”
 -아내가 홀어머니에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남편 시청자에게.

● 방송인 안선영

2 “‘손깍지’부터 ‘바람’입니다.”
 -외도의 기준을 단순히 정당한 명쾌한 ‘정답’.

● 김영옥

3 “바람피우다 걸려서 지질하게 죽는 나 조심하고 살아라, 개~ 나리 같은 놈들!”
 -방송에 등장한 수많은 외도 사연을 본 ‘육쟁이 할매’의 촌철살인 한 마디!

● 방송인 현영

4 “행복을 동그란 그릇이라 생각해요. 그 안에 돈이 70이면, 사랑과 건강은 30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고민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에 대한 ‘명품 조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5 “이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덜 불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을 깨는 전문의의 진단.

유지혜 기자

하정우, 8월엔 일본 열도 공략



배우 하정우가 다음 달 일본에서 영화 ‘PMC:더 벅커’와 ‘백두산’을 나란히 공개한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배우 하정우가 일본 열도를 공략한다. 두 편의 주연 영화를 잇달아 현지에서 선보인다. 특히 한반도 분단 상황을 배경 삼은 이야기라는 점으로도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한동안 멈춰있던 한류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정우는 8월1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일본 훌루를 통해 ‘PMC:더 벅커’를 공개한다. 이어 같은 달 27일 영화 ‘백두산’을 극장에서 개봉한다.

하정우는 2010년대 영화 ‘국가대표’가 일본 시타마치 코미디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면서 현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를 전후해 한일합작 영화 ‘보트’의

주연으로서도 현지 관객을 만났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현지 활동 이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일본시장을 겨냥하면서 다시 한번 한류 행보를 되새김질하게 됐다.

특히 ‘PMC:더 벅커’를 독점 공개하는 훌루는 하정우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오리온 뉴스 등 현지 매체는 훌루 측이 “할리우드 작품을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와 한국 민주화운동에 관한 실화를 그린 ‘1987’ 등 하정우의 주연 영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하정우의 두 주연작이 모두

1일 ‘PMC:더 벅커’ OTT 공개
 27일엔 ‘백두산’ 극장서 개봉

한반도 분단 상황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 관객에 소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PMC:더 벅커’는 비무장지대 지하 벅커를 배경으로 글로벌 군사기업 용병의 이야기를, ‘백두산’은 폭발 직전의 백두산과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각각 그렸다. 지난해 일본 한류 열기를 재점화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남한의 재벌가 상속녀와 북한군 장교의 로맨스를 통해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현지 시청자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하정우의 주연작이 관객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시선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모가디슈’ 12만6000여명 개봉일 최고 흥행



영화 ‘모가디슈’

영화 ‘모가디슈’가 올해 한국영화 개봉 첫날 최고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29일 영화관입장감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모가디슈’는 개봉 첫날인 28일 전국 12만6000여 관객을 불러 모았다. 지난달 개봉한 조우진 주연 ‘발신제한’의 5만 5000여 관객 기록을 넘어섰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극장이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거둔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의 위기에 놓인 남북 대사관 직원들의 목숨을 건 탈출기이다.

유영진·테디, 빌보드 선정 ‘뛰어난 PD 50인’



유영진 테디

SM엔터테인먼트의 유영진·YG엔터테인먼트(더블랙레이블)의 테디가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뛰어난 프로듀서 5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9일 빌보드는 음악 스태프가 직접 뽑은 해당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활약한 뮤지션을 기준으로, 모든 장르를 망라해 역량이 ‘뛰어난 프로듀서’를 선정했다. 빌보드는 “테디가 힙합과 EDM을 기반으로 한 폭발적 사운드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등을 썼다”고 밝혔다. 유영진은 “SM이란 기계의 가장 중요한 톨니바퀴”로 소개하고 슈퍼주니어의 ‘소리 소리’ 등 맨스비트 강한 음악으로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고현정·조인성, 김현주와 한술밥 먹는다



고현정 조인성

배우 고현정·조인성이 김현주와 한술밥을 먹게 됐다. 고현정의 소속사 아이오케이 이가 김현주·신혜선·김인권 등이 소속된 YNK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했다. 아이오케이 29일 “YNK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더욱 다양한 배우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아이오케이 29일 올해 하반기 영화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김진명 작가의 소설 ‘고구려’의 판권을 확보해 영상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박성광·이슬이, 소아암재단에 손소독크림 후원



박성광·이슬이 부부

개그맨 박성광과 아내 이슬이 씨가 최근 한국소아암재단에 2000만 원 상당의 손소독 크림을 후원했다. 기부 물품들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성광 이슬이 부부는 앞서 유기전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멸균 가운 1000벌을 대한의사협회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결혼해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나는 내 운명’에 동반 출연하고 있다.

샤이니 일본 미니앨범, 오리콘 앨범차트 1위



샤이니

그룹 샤이니가 일본 새 미니앨범으로 오리콘 차트를 휩쓸었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샤이니의 일본 새 미니앨범 ‘슈퍼스타’가 발매 당일 오리콘 일간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슈퍼스타’의 음원은 지난달 28일 각종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선공개됐다. 이후 빌보드 재팬 다운로드 앨범차트 1위, 아이튠즈 톱 앨범차트 전 세계 19개 지역 1위 등을 기록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슈퍼스타’를 비롯해 ‘클로저’ ‘시즌스’ 등 신곡과 함께 정규 7집 타이틀 ‘돈 콜 미’ 일본어 버전 등 총 5곡이 수록됐다.